

[名人列傳] 시공간을 뛰어넘는 문화는, 긍정적 유산 전달 `마법 양탄자`

내 주변의 모든것이 스승이자 아이디어 원천
다양한 책·문화 경험이 큐레이터 직업에 도움

기사입력 2016.09.22 08:47:49

■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수석 큐레이터 김승민씨

"문화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마법의 양탄자로서 긍정적 유산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로서) 사람들을 만나 (전시·기획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업무 관련 회의든 식사 자리에서든 누구를 만나도 영감을 얻으며 주변의 모두가 스승입니다. 소설의 표현 하나하나를 전시 제목으로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 미술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책을 다양하게 읽으며 문화를 자주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충북 청주에서 성황리에 끝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김승민 수석 큐레이터(36)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문화의 힘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 큐레이터는 12년차 독립 큐레이터(박물관·갤러리 등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큐레이터)로 한·영 수교 130주년 `어느 노병의 이야기`전(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병행 전시 `베니스, 이상과 현실 사이`(2015년) 등 다수의 국제 전시를 기획했다. 영국을 중심으로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온 그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서 주제전시(직지, 금빛씨앗)를 맡았다.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꼽히는 론 아라드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포함해 11개국 35개 팀이 참여하며 주목을 끌었다.

그는 "영국에서 6·25전쟁을 주제로 한 전시(과거로부터 온 선물)와 자선경매를 기획할 때 노인이 된 영국인 참전용사가 `내가 한국에 가기는 어려운데 나를 매직카펫(마법의 양탄자)으로 한국에 데려다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문화의 힘을 생각하게 됐다"며 "순수미술보다는 문화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전시기획을 하는 게 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큐레이터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 전시를 기획하며 `꿈`이란 키워드를

발견했다. 이를 이경훈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수석 디자이너 등 명사들의 특강 프로그램(꿈이란?)으로 꾸며 관객과 소통했다. 그는 "직지는 스님이 제자를 위해 좋은 말을 금속활자로 찍은 것인데 `금빛씨앗`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그랬듯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우연한 기회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연히 찾은 전시장에서 열정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을 보며 꿈이 바뀔 수도 있고 가슴이 뭉클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큐레이터는 대학 졸업 후 세계적인 경매사 소더비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영국에서 최초로 한국 도자기 경매를 벌였다. 전시(한국현대도자영국특별전)도 열고 주영국 한국문화원 초대 큐레이터(2007~2011년)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현대 도자기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해외에서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 한국의 도자기업체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매와 전시를 열 수 있었다"며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꼭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디어의 원천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영감을 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며 심지어 일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배우기도 한다"며 "인문학적으로 문학, 철학 등 다방면에서 책을 읽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큐레이터는 큐레이터의 삶이 밖에서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아름다운 것을 보며 작가들과 소통하는 큐레이터는 분명 매력적인 직업"이라면서도 "개성이 강한 많은 작가들과 소통해야 돼 인간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행정적인 일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작가들과 얘기를 할 때 정말 밀천이 떨어지는 걸 느껴 영국에 돌아가 박사과정(왕립예술학교(RCA) 큐레이팅)을 밟을 예정"이라며 "내년 전시를 위한 일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해 남은 3개월 동안은 원 없이 책을 읽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미술사를 전공(런던 소더비 예술사 학사,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미술사 석사)하고 일상 속에서 배움을 추구

하지만 여전히 공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